

## 축 사

녹음이 짙던 금정산에 어느덧 가을색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에 범어사는 오랜 숙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화엄십찰의 하나로 창건한 이래, 실로 1400여년 만에 총림으로 승격하는 경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창건 이래로 의상, 원효, 표훈, 낭백, 명학 대사와 같은 고승대덕을 배출하였고, 근대에 들어서는 경허, 용성, 성월, 만해, 동산 큰스님과 같은 선지식을 배출한 선찰대본산입니다. 여러 선지식에 의해 이어진 수행가풍은 근대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였음은 물론 불교정화운동을 이끌면서 조계종의 오늘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성월스님께서 이곳을 선찰대본산으로 명명하고 당대의 고승 경허스님께서 진행한 수선결사는 근대 이후 한국불교에서 추진된 총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사수행이 총림이라는 인식 속에 청규를 제정하여 대중화합을 꾀하고 여법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총림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백장청규의 정신에 입각한 전형적인 총림을 복원하려 했던 정진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오늘 금정총림이 서게 되니 실로 100여년에 걸친 서원이 이룩되는 순간입니다.

총림은 백장 청규로 대표되는 수행정신에 따라 수행과 율력이라는 두 가지의 틀로 운영되며, 수행자로 하여금 건성성불 하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자,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선(禪) 전문대학’입니다. 이 총림을 이끌고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방장(方丈) 큰스님이며, 총림의 대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청규(淸規)입니다.

오늘 금정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신 지유 큰스님은 20여년간 조실로 계시면서 제방의 운수납자들을 지도하시며 선의 정수를 가르쳐주신 큰 스승이십니다. 일찍이 동산 큰스님의 문하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셨으며 특히 효봉 큰스님께 화두를 받아 일념정진하신 일은 선가에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법석을 통해 일생동안 백장청규를 몸소 시현해보이신 지유 큰스님을 방장스님으로 모시게 되면서 비로소 금정총림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방장스님을 비롯한 금정총림의 모든 사부대중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400여 년 동안 범어사는 그 어느 곳보다 신심 깊은 불자를 배출해온 포교도량이었으며,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선종대본찰로서 부산과 영남지역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총림의 면모를 갖추게 된 범어사는 부산과 영남불교의 중흥이라는 과제와 함께 명실상부한 총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금정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취임하시는 지유 큰스님의 지도 아래 생사관문을 타파하기 위한 치열한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골수에 새기려는 공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조계종 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정총림의 사부대중 모두가 100여년 만에 이룬 서원을 더욱 새롭게 하여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대표 총림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방장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